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월 31일(금)
(음력 1월 3일)
Пятница
31 января 2025 г.
№ 4 (1212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29일은 음력설이다. 지난 25일(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에서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음력설맞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3면에 게재) (이예식 기자 촬영)

강한 풍설로 쌓인 눈, 리만렌코 주지사 지시로 제설작업

1월 28일(화)부터 사할린주가 풍설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공공경리 및 도로서비스 부서들이 대책을 강화해 작업에 착수하면서 도심을 비롯한 주변 거리의 쌓인 눈을 쉬없이 제거하고 있다. 알레리 리만렌코 주지사는 제설장비 차량들에게 주택 구역을 제설하고, 무엇보다 중심 거리를 비롯해 유치원과 병원, 상점들 진입로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도심 거리의 눈을 치우고, 인근 마을들과 계획지구들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46대의 차량과 142명의 제설인력들이 나서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정류장, 주차장, 보행자 구역을 깔끔히 치우고 있으며, 며칠에 걸친 제설작업으로 덤프트럭 2,300대 이상이 눈을 실어날랐다.

농업과 축산농장 생산업체와 가공산업 업체들에게 폭설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들 주요 업체들에게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모든 작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생선품들도 브랜드 매장으로 배송되고 있다.

사할린주의 공항은 기상악화를 고려하여 55대의 제설차량이 활주로를 정비하고 있고, 수요일 아침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전날 일정이 변경되었던 항공편이 착륙했다.

1월 29일 아침에는 트로이츠코예 - 노위 트로이츠코예 구간 도로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었고, 노위알렉산드롭스크에서 브즈모리에까지 차량 도로 구간과 리스트웨니츠코예 - 오호츠크코예의 차량 도로는 여전히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다.

연방고속도로는 제설 차량 84대가 제설작업을 하고, 지방도로에서는 100대 이상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와니노항-흙스크항로의 선박 운항은 1월 31까지 정지되었고, 세웨로-쿠릴스크 항구를 비롯해 흙스크, 코르사코브 항구는 제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나머지 항구들은 정규 일정대로 운영되고 있다.

철도 측에서도 폭설로 인해 지방으로 가는 몇 개 노선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제설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장거리 열차는 일정에 따라 운행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1월 29일(수)에는 9개 지역의 94개 학교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이어갔고, 1월 30일에도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학교들은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유치원들은 운영을 중지하지 않았다.

주 도로교통산업부 막심 조골레브 장관의 말에 따르면 도로서비스는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지역은 승객과 화물운송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통제 속에 상황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고 간주려 말했다.

(주정부 자료에서)

사할린주, <가족> 새로운 국가기획 시행 착수

사할린주에서 <가족>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가족의 가치와 문화 제반시설 구축> 새로운 지역 기획 시행이 시작된 가운데 알레리 리만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사업이 조성되었다.

지역자원 사업 착수의 주된 목표는 가족제도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가치들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가족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재정적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주변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전면적인 발전을 위해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어린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서관과 예술학교와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가족의 가치와 문화의 제반시설 구축> 기획의 일환으로 이들을 위한 필요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가 말했다.

2030년까지는 사할린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와 박물관, 아동예술학교의 장비 구비를 포함해 일련의 문화시설들의 주요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신세대를 위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이미 노글리키의 도시형 마을 지역 문화센터에 주요 보수공사를 시작했고, 이 공사는 2026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계획상으로는 비코브 마을 아동예술학교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크니즈니 크바르탈(책의 거리)'도서관의 주요 보수공사도 포함돼 있다.

연방예산의 지원으로 박물관들의 기술장비 설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경연대회의 우승을 차지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과 티몹스코예 향토박물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처음으로 국가기획 시행에 사할린 필하모닉이 포함되어 공연에서 음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장비들을 올해 구입할 계획이고, 2025년에는 스미르니흐 중앙모범도서관을 기반으로 신세대 모범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의 논

나 라브리 장관은 "문화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사람의 주거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 <가족> 국가기획은 자녀를 가진 러시아 국민의 가정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출산율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기획은 문화적 공익을 조성하고, 문화서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적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년간 사할린주에서는 일린스코예 마을을 비롯해 네크라소브카, 비코브, 아도-티모워, 위소코예, 노위-트로이츠코예 마을들에 새로운 문화센터가 건립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문화시설들의 주요 보수공사가 이뤄진 곳은 부유클리 마을을 비롯해 미주롭카·페트로과블롭스크·트레치야 파지·메드베주에·니콜스코예·포레치예·시네고르스크·모스칼워·차플라노워·슌호즈노예·노위코워·프라우다·스타로몹스코예·세부니노·고르노자

위드스크·차과예워 마을들, 오하의 박물관이다.

또한 주요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뤄진 곳은 제2호 아동예술학교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아동미술학교, 마카로브의 아동예술학교이다.

또한 문화기관들에 현대적인 약기들을 비롯해 장비와 교육자료를 공급하고, 자체 소장품들을 개선했다.

신세대를 위한 도서관이 건립되고, 사할린에서는 처음으로 다기능문화센터-자동화 클럽을 매입해 디지털 가상공연장을 조성했다. 문화 분야의 직원들은 평생교육센터들과 국내 우수대학들에서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켰고, 우수한 농촌 문화기관과 그 분야의 직원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 직업의 위신을 향상시키며, 예술적 행사에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의 가치와 문화의 제반시설 구축> 기획은 사할린 지역에 문화적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교육을 계속하고, 가정을 지원하며,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주정부 자료에서)

인복(人福)이 많은 최금순 사장, "사람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다"

최금순(러시아 이름 최 나탈리아)씨는 여러 번 동포행사에서 보아왔다. 8월에 처음 얘기를 나누는 후 취재를 위해 음력설 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50대 초반의 나탈리아 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태어나 내내 도시에서 생활했다. 어렸을 때부터 창의력이 뛰어나 특히 재봉의 손재주가 있었다. 학교 실습에서 또는 경연대회에서도 앞치마나 치마나 재봉하는 기술은 남다르게 뛰어났다.

미술수업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는 솜씨는 외갓집의 피라고 나탈리아가 말한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서 의상 디자이너를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부모(아버지 사진사, 어머니는 광산 측량사-엔지니어)님은 딸이 의사 가 되길 소망해서 자신의 솜씨나 꿈은 일단 접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나탈리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의대에 입학하기로 했다. 그 당시 대학에 입학하려면 그곳에 가서 입학시험을 봐야 했다. 경쟁이 아주 심해서 시험을 잘 봤지만 통과를 못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유즈노사할린스크 사범대학(현 사할린국립대)에 입학했다. 전공은 생물지리학 교사였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장사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경제가 무너진 1990년대였고, 모두가 생활이 어려웠던 시기에 일을 시작했다. 경영에 관심이 많아진 나탈리아는 극동 국립대학교 소속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결혼하고 나서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여러 식당, 카페, 레스토랑에서 매니저와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다. 나탈리아는 광고신문사에서 디렉터로 일한 경험도 있고, '바운티 홀'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으로 관리인으로 일했다. 바로 거기에서도 그녀의 숨은 솜씨인 디자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여러 연수와 교육과정을 거쳐 배운 것이 레스토랑 장식에 요구되었다. 또한 한 때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꽃꽂이 자격증도 따내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결혼식 등 행사 장식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왔던 돈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쏟아내 2022년에 '인복(人福)'스튜디오를 개업했다. 이곳에서 돌잔치나 기념을 위한 한복을 비롯해 필요한 물품을 임대해주시고,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을 하기도 한다. 돌잡이도 하고, 가족사진도 가능하다. 기념행사 디자인 사이트도 만들었다. 그녀가 소개한 사이트에는 기념일 장식에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양했고, 기념일 장식은 대체로 따뜻하고, 정감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한 후 저에게 연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민족 전통과 풍습에 궁금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 사할린 동포 역사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봅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 우리 민족의 전통에 대해 더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라고 나탈리아가 말했다.

이런 생각으로 그녀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인회(회장 림종환)를 찾아가 2023년 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식 요리교실이 인기가 많아 일단 요리교실을 열었다. 나탈리아가 직접 이 요리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작년 초여름에 '나물'축제도 그 당시 시인회 부회장 유경옥 씨와 거

의 둘이서 계획하여 추진하였다.

나탈리아는 바쁜 가운데서도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계몽기획도 생각하고 있다. 한민족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크다.

돌상, 한민족 전통에 대한 행사는 한 번 주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밤'의 전국 행사의 일환으로 실행한 적이 있다.

나탈리아는 동포 가정에서 특히 젊은 가정에서 한민족 전통을 잘 안지키고, 모르는 것이 많아 걱정스럽다고 탄탄한다.

"가정에서 이걸 잘 이어가지 못하네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야 하는데요. 가족사도 이야기해야 하죠. 저는 아들, 딸에게는 할머니가 고생하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느끼도록 하고 한인들의 사고방식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라고 나탈리아가 말했다.

작년 8월 말에 그녀는 인천에서 진행된 세계 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에 참가했다. 그 자리에서도 역시 한민족의 전통과 풍습 지킴, 가정에서 민족교육 문제를 주장했다고 한다.

요즘 나탈리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투리스트'레스토랑의 리모델링에 관리자로서 일을 봐주고 있다. 그리고 '인복'스튜디오를 좀더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적 기업인으로서 또

하나의 계획을 추진할 생각이다.

바쁜 사람은 항상 바쁘게 지낸다. 그는 일복과 함께 인복이 많다.

"저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이 있나 봐요. '제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운이 있는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진실함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존중하고, 결코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첫번째와 두번째 조건을 잘 지키면 결국 나쁜 사람들이 주위에서 스스로 사라지고, 좋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죠."라고 최 나탈리아가 말하였다.

그래서 개업을 할 때 스튜디오 이름을 아주 오래 생각했다고 한다. '인복(人福)'은 그의 자산이기도 하다. 나탈리아는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배승신 기자)



이 모 저 모

'125그램의 봉쇄시기 빵', 레닌그라드 해방 기념으로 사할린 주민들에게 나눔

1월 27일 사할린주에서 파시스트의 봉쇄로부터 레닌그라드의 완전한 해방 81주년을 맞아 '봉쇄기의 빵'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행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들과 소년군관학교생도들이 참혹한 봉쇄기를 이겨낸 레닌그라드 주민들의 영웅적 행위와 강인한 정신을 사할린의 주민들에게 상기시켰다. 당시 봉쇄 도시의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최소 배급량은 중량 125그램의 빵조각으로 이 행사의 상징이 되었다.

이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이 전했다. "보통 빵보다 더 오래 굽는 이 빵은 약 50분간 굽는다. 어쨌든 우리 시대에 원래 '봉쇄기 빵'을 재현하기는 어렵고, 먹기에 안전하지도 않다. 봉쇄시기에는 빵 속에 나무와 밀기울, 밀의 미세한 가루, 껍질들이 첨가되었다. 밀가루는 녹말풀이나 석회로 대체되기도 했다. 이러한 빵맛은 쓴맛이 나고, 굳기 정도가 점토를 연상시킨다. 레닌그라드 봉쇄기의 역사는 비극과 영웅적 행위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고, 젊은 세대들의 세계관을 형성시킨다."고 승전 80주년 국제 자원봉사부대 훈련센터의 안토니나 키릴로와 소장이 설명했다.

참혹했던 대조국전쟁을 상기시키는 이 행사는 국내 전 지역에서 1월 27일에 진행되었다.

레닌그라드 봉쇄는 1941년 9월 8일부터 1944년 1월 27일까지 지속되었다.

독일과 핀란드 군대에 포위되었던 도시의 주민들은 872일간 용맹스럽게 상실과 고난을 견뎌내었고, 레닌그라드 주민의 영웅적 행위와 강인함에 영웅의 도시라는 명예적 지위가 레닌그라드에게 수여됐다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раздали 125 граммов хлеба в годовщину освобождения Ленингра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а акция памяти «Блокадный хлеб», приуроченная к 81-й годовщине полного освобождения Ленинграда от фашистской блокады.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волонтеры и юнармейцы напомнили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о героизме и стойкости ленинградцев, которые пережили страшные годы осады. Символом акции стал кусочек хлеба весом в 125 грам-

мов — минимальная суточная норма для жителей блокадного город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хлеб печется дольше обычного — около 50 минут. Однако воссоздать оригинальный «блокадный» хлеб в наше время сложно, да и есть его небезопасно. В те годы в состав добавляли древесину, отруби, мучную пыль, лузгу. Муку часто заменяли клейстером или известью. Такой хлеб был горьким на вкус и напоминал пластилин по консистенции. История блокады Ленинграда — это трагедия и героизм, которые проникают в самое сердце и формируют мировоззре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 поделилась Антонина Кирилл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подготовк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волонтерского корпуса 80-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Акция памяти проходит 27 января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напоминая о страшных события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локада Ленинграда длилась с 8 сентября 1941 года по 27 января 1944 года. Жители города, окруженного немецкими и финскими войсками, мужественно выдержали 872 дня лишений и тягот. За героизм и стойкость Ленинграду был присвоен почетный статус Города-Героя.

<작은 고향 러시아의 저력> 제2회 포럼 지역단계 시작

러시아에서 제 2회 전 러시아 지방자치단체 포럼 <작은 고향 - 러시아의 저력> 지역 단계가 시작되었다. 행사 진행을 위한 첫 행사장은 무르만스크주로 향후 몇 달간 포럼은 국내 16개 행정자치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부의 후원으로 전 러시아 지역자치발전협의회가 주최한다. 2025년 지역단계 포럼은 1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며, 사할린주에서 행사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계획이 잡혔다. 포럼은 전 러시아 지역 <봉사>상 우승자 시상으로 마무리된다. 2024년에 러시아 연방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상식에 참석해 국내 자치지역들의 발전을 위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작은 고향 - 러시아의 저력> 포럼은 자치지역들의 대표들에게는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전문적인 연계를 구축하며,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Стар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II форума «Малая родина-сила России»

В России стар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II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форума «Малая родина

— сила России». Перв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стала Мурманская область.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месяцев форум пройдет в 16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Организатором форума выступает Всеросси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АРМСУ)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гиональные этапы форума пройдут с января по апрель 2025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с 14 по 18 апреля.

Финалом форума станет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Всероссийской муниципальной премии «Служение». В 2024 году в церемони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что подчеркивает значимо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стране.

Форум «Малая родина — сила России»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обменяться опытом, установить нов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онтакты и получить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в решении актуальных задач на местах.

<사할린 상어>, 세부니노 어린 하키 선수의 새해 꿈 이뤄줘

<사할린 상어> 하키클럽이 전 러시아 행사인 '소원의 올가'에 참여해 하키선수를 꿈꾸는 소년에게 진짜 명절을 선사했다.

네벨스크 지역 세부니노 마을의 지마 스테파노브는 바라던 하키 장비를 선물로 받게 돼 그의 꿈이 이뤄졌다. 소년은 하키의 매력에 빠져 새해에 선물로 하키 장비를 소원했었다.

<사할린 상어> 하키팀은 이에 방관하지 않고, 지마의 소원을 이뤄주면서 진짜 마법 같은 새해 명절을 그에게 만들어주었다.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исполнили новогоднюю мечту юного хоккеиста из Шебунино

Хоккейный клуб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Ёлка желаний» и подарил настоящий праздник юному любителю хоккея.

Мечта Димы Степанова из поселка Шебунино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сбылась — он получил в подарок желанную хоккейную экипировку. Мальчик увлекается хоккеем и загадал именно такой подарок на Новый год.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ие Акулы» не осталась в стороне и исполнила желание Димы, сделав его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по-настоящему волшебными.

(8면에 계속)

'출판의 날' 맞아, 사할린 한인동포 언론인 4명에 표창

1월 13일은 러시아에서 출판의 날이다. 이날은 언론인들에게 축하하는 날로 해마다 사할린주 정부에서 이날을 기념해 행사를 열어 주지사가 직접 주내 언론인들에게 표창을 한다.

올해 주지사의 바쁜 출장 일정으로 이 행사가 좀 미뤄져 지난 24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주 민속창작센터에서 언론인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날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매년 러시아 '출판의 날'에 언론인들에게 축하하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함께 <배려, 보호, 존경심>이란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공공 장소를 정돈하고, 벽화를 그립니다. 또한 <참여>란 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전선에 나가는 군인, 그들의 가정들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섬 지역의 기자들은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특수군사 작전에 관한 기사를 쓰고, 우리 참전장병들을 지지합니다. 이 주제는 2025년 승전 80주년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쉬함에 야외 박물관을 열 예정입니다."

북위 50도선 스키르니흐 지역에서 우리는 1945년 8월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해방하기 위해 치렀던 세 가지 전투를 재구성해 재현할 것입니다. 2월 22일에는 전통 공연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를 개최하고, 9월 3일에는 퍼레이드를 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조명해보고,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오늘날 전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실행해가겠습니다. 출판의 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축사를 전했다.

사할린주 언론인동맹 회장인 블라디미르 세멘치크는 "기자라는 직업의 본질은 모든 곳에서 처음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행사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해결해야 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며, 우리의 본분에 맞는

ДЕНЬ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행위다. 사할린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러시아 언론인동맹의 상위 20개 우수 지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재 지역의 관심사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사할린주의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또한 뛰어난 언론인들에게 여러 상을 수여했다.

<사할린 지역의 명예 언론인> 칭호는 '구베른스키에 웨도모스찌'지의 칼럼니스트인 세르게이 사타가노브와 외직 고르부노브에게 수여했다.

주 정부 표창장과 주지사의 감사패를 이날 주내 언론인 8명이 받았는데 그중 4명은 사할린한인 언론인으로서 주정부의 표창장은 미디어그룹 대표 배 루슬란, 감사패는 '오테웨'텔레방송국의 수석 편집장 김 갈리나, '사할린'국영 텔레라디오방송국 이복순 기자(우리말방송)와 새고려신문사 사장(편집장) 배 워토리아가 받았다.

배 워토리아 편집장의 감사패에는 '전문성, 장기간의 노력, 한국어 유지에 대한 공로와 그리고 러시아 연방 외부에 사할린주를 대중화하는 공로'라고 쓰여있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주민들, 만성질환 악화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 받길

2024년에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20만 명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은 가운데 검진과정에서 환자들 자신도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1만2천 가지를 밝혀냈다. 올해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장수 및 활동적인 생활'국가계획 <모두를 위한 건강> 기획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며, 25만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은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18세부터 40세까지는 3년에 1회, 40세 이후에는 매해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목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일반 검진 목록에는 혈압 측정, 임상 혈액검사, 혈액의 콜레스테롤, 포도당, 총 단백질, 알부민, 피브리, 크레아틴 등 기타 수치를 평가하는 생화학적 혈액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검사는 혈액순환의 질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할린주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주요 사망원인이기도 하다. 건강검진 시 의료예방과의 직원들은 악성 신생조직의 존재, 당뇨 여부, 호흡기 질

환 및 기타 등을 검사한다. 만약 1차 검진 중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보이면 환자에게 추가검사나 세부 과목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도록 권고한다."고 주 공공보건센터의 부원장 대행인 안나 모길렌코가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민은 자신의 생식기 건강도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설문조사를 하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다. 여성에게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남성에게는 비뇨기과 의사에게 검사를 받게 한다. 검진 시 환자에게서 병리적 요소가 발견되면 다음 단계의 치료를 위해 추가 검사목록을 지시해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예방과의 진료예약은 전화 1-300이나 주치의의 통화를 할 수 있다. 근로를 하는 모든 국민은 검진 시 40세 이하는 3년에 1회, 40세 이상 - 은퇴 전까지의 연령은 매해 1일 유급 휴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근무를 하는 연금수급자와 퇴직 연령의 직원은 1년에 2일 1회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다.

사할린주 한인회, 음력설 행사 진행

지난 25일(토)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약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음력 설맞이 행사가 펼쳐졌다.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주최·주관한 이 행사에 1세 동포 어르신, 주·시 정부 및 두마 대표, 협력 및 후원 기관과 업체, 단체 대표들, 지방 한인회 대표들, 사할린 한인 2세대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을 사할린주 정부 내 무정착국 예카테리나 시도리나 국장,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드미트리 하이브리예브 부시장, 사할린주 사회원 블라디미르 이콘니코브 회장, 사할린주 두마 임 유리, 크루글리크 아르쭌, 최 유리 의원들과 박 웨니아민 의원을 비롯해서 시두마 의원 등 다가오는 을사년에 평화와 행운을 기원했다. 또한 여러 기관 대표들이 작년에 주한인협회와 함께 추진한 계획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협력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도 모든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하고 모든 가정에 안녕과 부유함,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다채로운 한복을 입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초등학생들의 무대에서 귀여운 모습으로 세배를 했다.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 '희망'무용단, '하늘'타악기 팀과 최 율리아, 김 블라디미르 동포가수들의 공연이 명절 분위기를 한껏 안겨주어 관객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이날 '에트노스'학교의 '개나리'무용단(지도교사 김 예브게니아)의 멋진 무대는 한민족 예술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번엔 갈춤과 버구춤으로 추었는데 버구춤은 새로



연출된 춤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모두가 음력설에서 빠질 수 없는 떡국을 맛볼 수 있었고 김 블라디미르, 최 드미트리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흥겨워 즐거운 춤판을 벌였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어르신들 모시고 음력설 축하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는 한 달에 두 번 노인정 모임을 주관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보통 체조를 하고, 답소를 나누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시한인회 봉사활동가들이 점심상을 차린다. 지난 25일(토) 오전 11시부터 모인 할머니들이 이번엔 음력설을 축하했다. 정오 12시에 림종환 시한인회 회장, 박 웨니아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의원, 림 알렉산드르 시한인회 임원이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따뜻한 축하인사를 전하고, 선물로 쌀 한 포대(2.5kg)씩 나눠드렸다. 유치원생인 키릴과 미라가 한국말로 '새해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귀여운 인사에 할머니·할아버지



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시한인회의 합창단 공연과 강팔용 동포가수의 공연이 열려 이주 함께 춤을 추며 즐겼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선수, 극동 태권도대회(하바롭스크)에서 76개 메달 획득

얼마전에 하바롭스크 태권도연맹 회장배 태권도 시합에서 사할린의 선수들이 금메달 23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34개를 따냈다. 이번 경기에 사하공화국을 비롯해 캄차트카, 연해주, 하바롭스크 유대인자치구, 사할린주 등 국내 다양한 지역들의 대표선수들 300명 이상

이 참가한 가운데 사할린에서는 47명의 태권도선수와 5명의 사범이 참가했다. 이들은 '겨루기'와 '폼새'종목에서 경쟁을 했다.

전체 팀 순위에서는 사할린주가 1위, 하바롭스크 변경이 2위, 캄차트카 변경이 3위를 차지했다.

극동 연방관구 리듬체조 종목 선수권대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1월 28일(화) -30일(목)는 경기가 진행된 가운데 아까지 '위스토크'스포츠 훈련.강습센터에서 212명의 리듬체조 선수들이 강자를 가리

롭스크 변경, 부라치야와 사하공화국(야쿠치야)를 대표하는 리듬체조 선수들이 참가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собрания СОХМ

Образ змеи в корейском искусстве

Наступил восточный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В странах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егиона до 17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будет главенствовать знак змеи, одна из 12-ти животных, которая удостоилась чести попасть в восточный гороскоп. И это неудивительно.

Несмотря на скрыт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змей, люди всегда относились к ним с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Недаром образ змеи очень часто встречается в мифах и легендах народов всего мира. Иногда змеи выступают как верховное божество, участвуют в сотворении мира и людей. Например, скифы почитали богиню-змею как прародительницу всего живого (Апи), древние китайцы почитали змеювидную богиню бракосочетания Нюйва, которая вылепила первых людей из глины, а у меланезийцев богиня-змея Кахауси-бваре создала людей бессмертными и научила ремеслу.

Издавна змеи вызывали страх, однако их нередко обожествляли. В Персии, как и в Вавилоне, считалось, что змеи предвещают несчастье. Для египтян змея была символом мудрости. У античных греков, змея была символом постоянно возрождающейся жизненной силы и потому стала священным животным, посвященным богу врачевания Асклепию. Змея была священным животным древних Афин.

В Древнем Риме появление змеи в доме считалось предвестием смерти. В Индии кобра считается доброй змеей – индийцы верят, что она никогда не нападет первой на человека. Если все же «добрая змея» укусит, то суще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ая стихотворная молитва, обращенная к кобре:

О, укрой меня под капюшоном, /И не дай душе изведать страха, /И тревогу усмири скорее, /Что стучит в испуганный сердцах.

В корейском искусстве змея не столь популярный образ. Однако у древнекорейских племён куроньи (большая змея) была одним из тотемов и персонажем шаманской мифологии. Присутствие куроньи в доме — счастлирое предзнаменование богатства и долголетия дому, ибо в ее голове зарождается сверкающий драгоценный камень,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она живет свыше тысячи лет. Фантастические змеи-стражи с длинными телами, четырьмя крыльями и с раздвоенными языками изображались на 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знаменах. Они символизировали магические силы, дающие воинам победу. Крылатыми на стягах изображали и тигра с драконом, и черепаха, обвитую змеей. Выглядели эти существа совсем не устрашающе, поскольку художники изображали их в народной стилистике живописи минхва среди цветных лент облаков, что вполне объяснимо развитием образов и их качеств в недрах народного сознания.

Благодаря древним поверьям, корейцы верили в охранную силу четырех сторон света, на страже которых стоят духи-сасыны. Их изображали на древних стенах



Ким Сан Чжик (1934 г.р.). КНДР Черепаха, обвитая змеей. 1980-е Копия росписи из Большой гробницы в уезде Кансо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Намдо, VII в. Поступление: 2006, дар Кан Надежды Николаевны



Кацусика Хокусай (1760-1849). Япония Змея и лягушка. Конец XIX Поступление: 1987, из антикварного магазина (г. Ленинград)

гробниц. Согласно преданию, это Чхоннён ("зелёный дракон") - дух востока, Пэкхо ("белый тигр") - запада, Чуджак ("красная птица") - юга и Хёнму ("чёрный воин") - севера. В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дух «чёрного воина» предстаёт в образе - черепахи, обвитой змеей, с противостоящими друг другу головами с высунутыми языками. Символический смысл, лежащий в основе хёнму, передаёт идею единения земли и неба. Художник Ким Сан Чжик мастерски копирует древнюю фреску, идентичную по цветовой гамме и размеру.

Завуалированный символический смысл заложен в печатной гравюре известного японского художника 19 в. Кацусика Хокусай из собр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Змея и лягушка». Устойчивость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бесконечность жизни отражены во вьющемся стебле (символ долгой жизни) и крупном плоде тыквы, и стебле бамбука (символ жизненной стойкости).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е сил добра и зла, которое обеспечивает движение жизни, ее развитие и переменчивость, заключено в образах змеи и лягушки.

Ольга Хай, главны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раздела коллекции "Искусство стран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овый год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отм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В прошедшую субботу, 25 янва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празднование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праздник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и 2-го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еценаты, орган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ающие с РООС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йонов.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со сцены поздравили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катерина Сидорина, вице-мэр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митрий Хайбриев,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депутаты областной и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Малыши из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сделали новогодний поклон в рамках новогоднего обряда «Сэбе».

По традиции для всех был накрыт праздничный стол, где главным блюдом был новогодний суп ттоккук –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суп с рисовыми клецками,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удачи и процветания в наступающем году.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подарили выступления танцевальных ансамблей «Ариран» и «Химан»,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ыль», певцов Юлия Че и Владимир Ким.

Как всегда порадовало великолеп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танцев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Кенари» ДШИ «Этнос».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а

Журналис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дили в честь Дня печат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ное ко Дню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лично поблагодарил выдающихся журналистов области за вклад в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граждан об актуальных для региона вопросах, а также наградил выдающихся работников отрасли памятными наградами.

Традиционно каждый год мы собираемся, чтобы поздравить коллег с Днем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Вместе с вами мы работаем на благо людей - запустили программу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дворы и подъезды, сейчас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валам. Мы благоустраиваем общественные места, рисуем муралы. Запущена большая программа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Мы вместе помогаем нашим воинам, которые ушли на фронт, и их семьям. И наши островные журналисты пишут о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патриотизма и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ших бойцов. Эта тема будет главной в 2025 году, в год 80-летия Победы. Мы откроем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на Шумшу, на 50-й параллели в Смирных будем делать тр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боев по освобождению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22 февраля проведем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нцерт «Своих не бросаем», 3 сентября состоится парад. Вы будете освещать все эти события,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ветеран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о тех, кто сегодня возвращаются с передовой.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очень важной работой. И мы делаем ее вместе с вами. С праздником, друзья! - обратился к журналистам глава региона.

Суть профессии журналиста - везде быть первым. Нужно первым успеть на событие, рассказать о нем всему миру, узнать о проблеме и рассказать, как ее решать, в случае беды – первым позвать на помощь и самому ее оказать.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и мы соответствуем этой сути. Впервы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топ-20 лучш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й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ллею журналистов, на которой планируем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овать фотовыставку об ушедших коллегах. Она будет называться «Сахалинские журналисты-фронтовики». Мы хотим рассказать о тех людях, которые когда-то сражались в окопах во времен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могали освобождать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а потом работа-

ДЕНЬ РОССИЙСКОЙ ПЕЧАТИ



ли в газетах, на телевидении, на радио и внесли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Владимир Семенчик.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журналис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воено обозревателю ИД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Сергею Сактаганову и Вадиму Горбунову.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и актив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четной грамот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градили шеф-редактор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илиала ГТРК «Сахалин» Александра Красноперова, режиссера ИД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Юлию Шрейдер, директора МГ «Слово» Руслана Пе.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ощрили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Томаринской типографии» Ирину Фетисову,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телевидения ИД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Галину Ким, обозревателя редакции «АКТВ» Светлану Коцубинскую.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ультуры и сохра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традици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роживающ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вручили специальному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ГТРК «Сахалин» Ри Бок Сун и главному редактор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иктории Бя.

Спасибо, Валерий Игоревич, за то, что проявляете такой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к нашему делу! Мы – единственная газета в стране, издающая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отдельн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за внимание к нашей диаспоре, вы часто с нами на всех наших праздниках, - обратилась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Виктория Бя.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йт «Корё сарам» возобновил свою работу

Редакция сайта «Корё сарам» возобновила работу после ухода из жизни своего основателя и бессменного редактора Владислава Хана.

Новым редактором сайта ст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Информа-

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корейцев СНГ Ариран.ру и один из авторов Telegram-канала KOPĔ-CAPAM/KORYO SARAM/고려인 Дмитрий Шин.

Редакция сайта уже обратилась к своим постоянным

авторам с просьбой о продолж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сылки на статьи сайта также публикуются на Telegram-канале KOPĔ-CAPAM/KORYO SARAM/고려인.

<https://t.me/saramko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Чёрный ящик самолёта Jeju Air прекратил работу за 2 км до ВПП

Бортовой самописец или «чёрный ящик» самолёта компании Jeju Air, разбившегося при посадк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аэропорту Муан 29 декабря, прекратил работу, когда до касания со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ой оставалось 2 километра.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тчё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27 января. В нём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обоих двигателях самолёта обнаружены перья и пятна крови байкальских чирков, вида уток. Время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птицей или птицами не установлено, но пилот подал сигнал бедствия в 8:58:56 утра и сообщил, что самолёт совершит посадку на фюзеляж из-за столкновения с птицей. Спустя 4 минуты 7 секунд самолёт врезался в бетонную насыпь курсового радиомаяка в конце взлётно-посадочной полосы.

КНДР сообщила об испытания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крылатых ракет

25 января раке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НДР провело испытательный пуск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крылатых управляемых ракет класса «море-земл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планов по наращиванию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ффективнос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контроля над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противника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Ракеты точно поразили цели, пролетев по эллиптической и восьмеричной орбитам длиной 1.500 километров в течение 7.507–7.511 секунд,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ый наблюдал за ракетными пусками, отметил, что «средства сдерживания войны тщательно совершенствуются.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РК обнаружили запуски нескольких крылатых ракет из внутренней част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Жёлтого моря около 16 часов 25 января. Судя по изображения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ракеты были запущен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метода холодного запуска, который обычно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вертикальными пусковыми установками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и кораблей. Однако место запуска на суше может указывать на то, что ракеты находятся на ранней стадии разработки, -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В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223 спортсмена из РК

24 января Корейский спортивный совет провел церемонию презент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борной, которая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IX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Харбине (КНР). Они пройдут с 7 по 14 февраля, и в Игра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3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34 стран, которые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64 комплекта медалей.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борной 223 спортсмена,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оревноваться в шести видах спорта: конькобежный спорт, лыжи, биатлон, кёрлинг, хоккей с шайбой и горные лыжи. Цель команды - второе место, как и на предыдущих зимних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в Саппоро.

РК готовится к первому за 9 лет росту рождаемости

Как ожидается, в 2024 году в РК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девять лет будет отмечен рост рождаемости. По данны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в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ноя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родилось 220.094 младенца, что на 3%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Число рождений в Сеуле и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превзошло показатели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наблюдался более слабый рост. Эксперты объясняют региональные различия тем фактом, что молодожёны и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20–30 лет проживают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Обесценивание корейской воны - второе по величине в мире

По данным Банк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расчётов (БМР), реальный эффективный обменный курс (РЭОК) корейской воны составил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91,3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снизившись на 1,99 пунк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месяцем ранее. РЭОК измеряет силу валюты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рзине других валют с поправкой на инфляцию. Значение ниже ста указывает на обесценивани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базовым годом, тогда как значение выше контрольного показателя означает обратное. Среди 64 стран, включённых в список БМР,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оказался вторым по величине, уступив только Японии с показателем 71,3. Месячное падение на 1,99 пункта также стало третьим по скорости в мире после падения валют Бразилии на 3,94 пункта и Австралии на 2,37 пункта. Национальная валюта, курс которой составлял порядка 1.370 вон за доллар в ноябре, резко упала до 1.442 воны после того, как 3 декабря в РК объявили чрезвычайное положение. В условиях политической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курс национальной валюты понизился к 27 декабря до 1.486,7 воны за доллар.

RKI

Президенту Южной Кореи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в попытке захвата власти

26 января действующему президенту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ю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ъявлены обвинения в попыт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Он стал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который оказался под судом, находясь на посту. Прокуратура предъявила обвинение в преддверии окончания срока содержания под стражей, который истек 27 января.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е прокуратурой обвин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состоит из более чем 100 страниц, в которых собраны свидетельства, полученные от других фигурантов дела, в том числе бывшего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а и ряда военачальников, ранее привлечённых к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Обвинение Юн Сок Ёля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статье о попыт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что позволяет игнорировать президентский иммунитет. Тем не менее, прокуратура не смогла включить в дело обвинения в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властью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наложенных Конституци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передавать дело в суд прокуратуре пришлось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пешке. Накануне суд дважды отклонил запросы прокуратуры на продление срока ареста, указав на недостатки 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доказательствах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трогого соблюдения процедур. Более того, прокуратура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предъявить обвинение, не имея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ести полноценные допросы президента, так как Юн отказывался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итоге было сделано заключение, чт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обранных показаний и фактов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передачи дела в суда, а с другой - всё равно вряд ли президент решил 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опросах. В итоге суд состоится. Ожидается, что до итогов вердикта придется ждать до 6-8 месяцев.

До прокуратуры этого дело вело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Именно оно получило ордер на арест и со второй попытк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нескольких тысяч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и смогло 15 января заставить Юна покинуть резиденцию и прибыть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После этого, однако, Юн постоянно отказывался общаться со следователями, указывая на незаконный характер своего задержа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слуша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м суде по импичменту он посещал и лично выступал на них. Прокуратура же не имела времени вообще даже для попыток допроса Юна, ее роль свелась лишь к передаче дела в суд, так как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не може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это делать.

Суд над действующим президентом стал поводом для раскола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читают действия прокуратуры "не-

допустимыми" и обвиняют её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мотивиров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и его защита еще более жестко критикуют всех, кто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него - парламент, следствие, прокуратуру и собственно сам суд. Оппозиция, напротив, настаивает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трогого правосудия, обвинительного приговора, а также досрочного снятия Юна с поста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еньше двух месяцев - 54 дня - прошло между попыткой Юн Сок Ёля ввести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и передачей дела в суд.

Напомним, что внутривластный кризис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ся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Юн Сок Ёль объявил о введении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объяснив это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нормализации госуправления.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 он затем назвал постоянно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 со стороны парламента, где доминировала оппозиция, а также наличием больших количеств подозрений в отношении подтасовок в ходе выборов.

Общество, однако, "не оценило" политическую креативность Юн Сок Ёля. Зарубежные наблюдатели также были шокированы действия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В итоге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продлилось лишь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и было отменено парламентом, решению которого подчинился и Юн Сок Ёль.

14 декабря парламент объявил президенту импичмент, временно отстранив его от исполнения полномочий до итогового реш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31 декабря Управление по расследованию преступлений среди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должностных лиц получило ордер на заключение Юна под стражу, а 15 января он был доставлен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ула, где и находится до сих пор.

Теперь ситуация вокруг президента Юна развивается по двум параллель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св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ведет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КС),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решить, было ли со стороны Юна нарушение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страны и будет ли импичмент утвержден. Если КС согласится с парламентом, то Юн Сок Ёль окончательно сложит полномочия президента, и будут назначены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Если импичмент отменят, то Юн вернется к исполнению обязанностей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со сроком полномочий до мая 2027 год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делом Юна теперь занимается и обычный суд, а обвинения ему предъявлены по уголовной статье - попытка захвата власти. По этой стать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чень серьезные тюремные сроки и смертная казнь. По мнению юристов, первым будет реш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а затем уже - по уголовной стать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Успех «Паразитов» заразителен

Сеул, 24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Новый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Бон Джун Хо «Микки 17» приглашен на 75-й Берли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Германии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Оргкомитет фестиваля объявил, что «Микки 17»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го гала-показа. В разделе «Специальный гала-показ» обычно представлены гламурные и популярные фильмы.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этом разделе был показ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криминальный боевик «Облава: выхода нет» с Ма Дон Соком в главной роли. «Микки 17» — научно-фан-

тастический фильм, снятый по одноименному роману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исателя Эдварда Эштона. В главных ролях Роберт Паттинсон, Стивен Юн, Наоми Эки, Тони Коллетт и Марк Руффало. Это первая режиссерская работа Бона за шесть лет после фильма «Паразиты», получившего Золотую пальмовую ветвь на Кан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2019 году. На Берлин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Микки 17» представили так: «Бон Джун Хо, сценарист и режиссер фильма «Паразиты», снова дарит нам ослепительно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е зрелище».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ойдет с 13 по 23 февраля.

Смартфоны с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Сеул, 24 января – ИА РУСКОР.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представила свои новейшие смартфоны серии Galaxy S с более продвинутым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мультимодаль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и функциями 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ой помощи. По Тэ Мун, глава подразделения мобильного бизнеса в Samsung Electronics,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овая серия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интеграцию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 опер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чтобы изменить то, как пользователи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с технологиями. «Серия Galaxy S25 открывает двери в ОС с интегрированным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которая коренным образом меняет то, как мы используем технологии и живем», — сказал он во время презентации. Все три модели оснащены чипсетом Snapdragon 8 Elite Mobile Platform для Galaxy — специальной версией, разработанной совместно компаниями Qualcomm Inc. и Samsung. Компания заявила, что это самый мощный процессор в серии Galaxy S, который на 40 процентов повышает произ-

водительность, качество масштабирования изображения и энергоэффективност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поколением.

Galaxy S25 Ultra оснащен сверхширокоугольной камерой с разрешением 50 миллионов пикселей, что больше, чем 12 миллионов пикселей у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а. Технология ProVisual Engine на баз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обеспечивает сверхчеткие снимки в различных условиях освещения. Технология Galaxy AI Audio Eraser помогает пользователю удалять нежелательные шумы из видео или управлять звуками голосов, музыки или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о заявлению компании, новая серия Galaxy S25 будет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ставлена 7 февраля по всему миру.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заказы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с 24 января по 3 февраля по цене от 1,69 миллиона вон (1178 долларов США) за модель Ultra, 1,35 миллиона вон за модель Plus и 1,15 миллиона вон за S25. Компания Samsung Electronics сохранила цены на серию S25 на том же уровне, что и на предыдущую сери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раждан реализовали 44 проекта

В 2024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реализованы 44 проекта. В 13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ах по предложениям граждан установлены дет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обустроены зоны отдых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дороги и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оборудованы остановочные павильоны и уличное освещение.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о свыше 1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за восемь лет гармонично интегрировалась в бюджетный процес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тал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ющихся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актик. Механизм простой: жители городов и сел предлагают вариан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а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выделяют бюджетные средства.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ут выдвинуть идеи, связанные с ремонтом зданий и дорожного полотн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парков и скверов, дет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установкой освещения.

Инициативное бюджетирование помогает оперативно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местного значения, которы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лнуют граждан, повыша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здесь и сейчас». Но этим его польза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Оно дает людям позитивный опыт участия в работе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 то же время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алаживают более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с гражданами. В результате стороны лучше слышат и по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работа властей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становится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ограммы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с каждым годом растет,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Лидером по количеству воплощенных в жизнь проектов в 2024 году стал Холм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округ. В течение года здесь реализовано 8 инициатив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В селе Правда благоустроена центральная площадь, а в селе Пожарское – зона отдыха. В селе Чапраново приведена в порядок общественная территория у памятной стелы. В селах Пионеры, Костромское и Серные Источник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дороги, в селе Яблочное проложена пешеходная дорожка, а в селе Чехов – установлен остановочный павильон.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отят жить в комфорте и удобстве на своей родной земле, и программа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отлич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озитивных перемен. Она не только способствует созданию 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но и объединяет жителей, вдохновляет их на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ради общего блага. Более того, между селами возникает некое дружеское соперничество: они стремятся представить самый качественный и полезный проект, ч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мотивирует население к участию в жизни сообществ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финан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Лепатина.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ктив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наблюдается, например,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С 2017 года здесь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но 29 инициа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4 из них завершены в 2024 году. В частности, в селе Победино благоустроена территория детского сада «Звездочка», в селе Буюклы построена новая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а в селе Первомайск выполнен комплекс работ по обустройству тротуара с уличным освещением.

Инициатива – мощный двигатель изменений. Процесс определения приоритетов основывается на запросах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Мы проводим опросы среди жителей, анализируем пожелания, а затем выходим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пользуются наибольшей поддержкой. Так, в этом году в нашем поселке появилась мультимедийная доска почета, а также была благоустроена прилегающая территория,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поселка Смирных Галина Кудинова.

За восемь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овано более 350 инициативных проектов. Из бюджета области на воплощение пожеланий островитян выделено порядка 1 млрд рублей.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одробнее с практиками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и проектами, реализованны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на портале: <https://pib.sakhalinfin.ru>.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создадут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священный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ут возводить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священный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О ходе работ по увековечению подвига солдат Красной Армии на Курилах до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В этом году мы отмечаем 80-летие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ах и Победу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менно на Курилах прошла последняя крупная битва войск СССР против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поставившая точку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Красная армия героически разгромила превосходящие силы врага, находящиеся в укрепрайоне на острове Шумшу. Подвиг советских десантников, отразивших контратаку японцев, — это пример ратной доблести, о котором в наши непростые времена важно помнить и рассказывать молодежи. Увековечить память о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 поруч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за выполнением которого я лично слеж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оссийски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музей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работает проект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и острова Шумшу,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ен поэтапно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екта реализуют летом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о дню Курильского десанта, 18 августа: в памятную дату на острове открое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консервация 12 единиц трофейной техники, ее установка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Также будут восстановлены сеть окопов и траншей, приведены в порядок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 доложил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Летом на Шумшу в местах ожесточенных боев пройдет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Найденные в ходе поисковых работ артефакты будут экспонироваться во временном павильоне. Обнаруженные поисковиками останки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торжественно перезахоронят на воинском мемориале.

18 августа на Шумшу планируется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а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К памятной дат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спортивному триатлону.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с Федер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Росмолодежь) разработали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ршрут для гостей острова Шумшу, включающий 14 исторических точек — поля боя, доты, батареи, аэродром, высоты и другие знаковые места.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ризывают пройт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для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развития хрон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Больше 200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ошл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в 2024 году. В ходе обследований было выявлено 12 тысяч заболеваний, о наличии которых пациенты ранее не догадывались. В текущем году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Здоровье для каждого» нацпроекта «Продолжительная и активная жизнь» работ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Планируется охватить 250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я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С 18 до 40 лет — раз в три года, после 40 — ежегодно. Список обследований различа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ла и возраста. Среди общих обследований — измерение артериального давления, клинический анализ крови, анализ крови биохимический,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определение уровня холестерина, глюкозы, общего белка, альбумина, фибриногена, креатинина и другие, флюорография, ЭКГ.

В основном вс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правлены на выявление болезней системы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Они являются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смертности не толь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и во всей стране. Также во время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сотрудники отдел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проверяют человека на наличие злокачественных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рного диабета, заболевания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и прочего. Если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врач увидит отклонения от нормы, то пациенту будут назнач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анализы или приём у узк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оровья Анна Могиленко.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рамках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россияне 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и своё репродуктивное здоровье. Сначала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едлагают пройти анкетирование, а затем проводится обследование. Для женщин — у гинеколога, для мужчин — у уролога. При выявлении патологии пациенту будет назначен расширенный список обследований с последующим лечением.

— Я считаю, что проходить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необходимо регулярно. У меня это понимание пришло с возрастом, но никогда не рано задуматься о своём здоровье. Тем более, что сейчас очень приятно проходить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очередей нет. За предыдущие пять лет у меня были отклонения от нормы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анализов, но врач всегда назначает действенные способы лечения,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осложнений, - поделилась пациентка Центральной поликлин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лена Гайдук.

Записаться в отдел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филактики можно по номеру 1-300 или через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Всем работающим гражданам предусмотрен оплачиваемый выходной при прохождении диспансеризации: до 40 лет — 1 день раз в 3 года, в 40 лет до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 1 день ежегодно. Трудящиеся пенсионеры и сотрудники предпенсионного возраста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 диспансеризацию 2 дня один раз в год.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апитально ремонтируют большой участок главной город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иступили к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около 1 километра дорог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до Пионерской. На втором — от Пионерской до Украинской. Ход работ на объекте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дороги будут учтены все совреме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одрядчик заменит инженерные сети, включая ливневую канализацию, демонтирует старый и построит новый автомобильный мост через реку Рогатка, обустроит проезжую часть, тротуары, уличное освещение.

— Нам предстоит провести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затронет участок от улицы Украинской

до Сахалинской. Это одно из знаковых мест в городе. В этом районе у нас расположены «Сахалин Арена», дом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у нас запланирован очередной этап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абережной Рогатки, который синхронизировали с капитальным ремонтом дороги.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мы приступим к обустройству новой площади у дома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еще одним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наших горожан.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озаботиться о том, чтобы проспект Мир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ыл комфортен для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и пешеходо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йчас подрядчик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ам по замене дорожного основания, которые можно проводить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а также к обустройству временного моста для удобства горожан.

— Мы понимаем, что это центральная улица города, поэтому стараемся выстроить работы так,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неудобства для жителей. Мы откорректировали фазы на светофоре на пересечении с Бумажной, что позволило ускорить трафик, -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дрей Ковальчук.

Срок завершения работ по муниципальному контракту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 осень 2025 года. Работы проводя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Напомним,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расширению выезда из города.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от поворота к гипермаркету «Бубль-гум» до перекрестка с Охотской трассой будет обустроено четырехполосное движение. Необходимые средства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 бюджет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2025 год.

В 2025 году Сахалин примет около полусотни всеросси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2025 год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о вырастет количество зрелищ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Регион планирует принять 44 мероприят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ровня. Об исполнении новой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доложили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на еженедельном заседании остр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красивы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енных в календарь, станут «Сахалинские ночные полеты». Приедут участники со всей страны.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на трамплинном комплексе «Высота»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при свете прожекторов летающие лыжники покажут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Впервы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Евразийский Кубок по прыжкам в воду в новом центре вод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Волна».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ый центр «Восток» примет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е: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т порядка 6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В Анив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пройдет нац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пляжному волейболу.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мы встрет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инал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хоккею «Золотая шайба», - доложи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а вся спортив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в том числе и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который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летом.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на новой площадке состоится Первенство России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о проведении на островах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одному из зрелищных видов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 прыжкам с шестом. Также в календарь соревнований планируют включить нац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по женскому хоккею.

— Мы уже два месяца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мся стратегией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региона, которую презентовали федеральному министру Михаилу Дегтяреву, заручились его поддержкой. Я настаиваю на том, чтобы уже сейчас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сетка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ближайшие три года. Мы хотим, чтобы Сахалин принимал самые масштабные чемпионаты страны и мир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уровень организации позволяют это сделать. Сегодня наша задача — стать спортивным центро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ассово вовлекались в спортивное движени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лагодаря развити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внедрению программ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держивает статус самого спорти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67 % жителей занимаются спортом. Для повышения этих показателей в декабре 2024 год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провел серию встреч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федераций и спортивных школ региона, по итогам которых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трехлетня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на Сахалине. Ряд инициатив уже взяты в работу. Так,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появится центр медико-биологического сопровожд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где они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физиологическую, фармакологическую,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проходить реабилитацию. Для атлетов создадут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они смогут готовиться к чемпионатам без отрыва от учебы. Также перед регионом стоит задача к 2027 году довести количество зрелищных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о 60 в год,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портив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и увеличить количество титулован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고려인동포와 함께 설맞이 인천 연수구 노인복지관서 봉사활동

이상덕 청장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 15명 참여...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위문품도 전달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월 23일(목) 오전,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한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 대한고려인협회, (사)너머 고려인청소년봉사단에 소속된 고려인 동포 15명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상덕 청장은 복지관에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에 대한 음식 배식,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16세 청소년부터 52세 청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이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며 배식과 설거지를 하자 복지관 이용 지역 어르신들은 흐뭇해 하며 좋아했다.

봉사에 참여한 고려인 동포 김 세르게이 씨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고려인 동포와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동포들과 함께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우리말로 깨닫다]

나라에 대하여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나라가 지금은 국경으로 명확히 나누어지지만, 예전에는 나라끼리 분명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오기도 하는 곳이지요. 옆에 있는 나라가 좋다고 하면 건너가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쓰는 어휘가 ‘귀화(歸化)’입니다. 귀화의 귀는 돌아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귀화는 임금의 덕에 감화를 받아 그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덕이 많으면 당연히 백성이 늘어납니다. 물론 반대로 나라가 엉망이면 백성이 줄어들지요.

우리가 모여 사는 곳을 마을이라고 하고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나라인 셈입니다. 내가 모이면 집안이 되고, 집안들이 모이면 나라가 됩니다. 나라는 그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가 모여서 세상과 천하가 됩니다. 이때 쓰는 말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죠. 수신이 곧 제가고 제가가 곧 치국이며, 치국이 곧 평천하입니다. 평천하, 치국, 제가의 시작은 모두 나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서야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가 귀한 줄 알고, 가족이 귀한 줄 알고, 나라가 귀한 줄 알면, 세상이 귀한 줄 압니다. 내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남이 귀한 줄 알고, 내 집안이 귀한 줄 아는 이는 집 밖도 귀한 줄 압니다. 내가 사는 나라를 귀히 여기는 자는 다른 나라도 귀히 여깁니다. 그러면 천하가 모두 귀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끼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나만 귀한 줄 알면 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바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는 순간입니다. 내 집안만 귀한 줄 아니까 혈연(血緣), 학연(學緣), 지연(地緣)이 내 눈과 귀를 가로막습니다. 내 나라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국가 간 분쟁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혐오를 낳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상이 이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사람답게 살려고 했더니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 주고 우리도 세상을 좋아합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서 큰 관심을 받고, 인기가 높아집니다. 우리말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한국어의 재미에 푹 빠져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일로 치유가 되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마움을 잊고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뛰어나고 남이 못난 줄 압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외국인을 무시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혐오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사이에 가득한데 나라가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결말이 보입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나라가 그렇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민주주의와 문화를 함께 이룬 나라라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빈부의 극심한 대립이 경제 성장이라면 그런 경제가 자랑할 만한 건가요? 문화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때를 묻히는 것투성이라면 선한 영향력일까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배려 없는 주장만 어지러이 춤을 춥니다. 독선이 민주가 아닌데 내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무시합니다.

모두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극단으로 달려가면 나뉘고 쪼개질 수밖에 없지요. 중도(中道)는 가운데가 아니라, 양극단이 아닌 자리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에 분노와 우울감이 앞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하지만 나라 걱정하는 이가 많으니 좋아지겠죠. 그렇겠죠.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인하대와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 위해 협력한다

1월 24일 동포청서 MOU 체결... 동포정책 관련 학술 교류·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월 24일(금)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상덕 청장과 조명우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재외동포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외동포정책 관련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상덕 청장은 “인하대는 하와이 이민 1세대 동포들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조국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모은 성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면서 “인하대와 이번 협력이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외동포 산업 기반 확대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전세사기 피해' 외국인 긴급주거지원 최장 6년까지 늘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

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인천공항에 '중소제품 전용 면세점' 속속 문열어

최근 개소 이어 오는 6월 2개소 추가 개소면세점 중 최저 수준 수수료(23%)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이 오는 6월 인천국제공항에 추가로 2개소가 문을 여는 등 총 6개소로 늘어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새롭게 설치된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중기부가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면세구역)에 위치한 면세점으로, 중기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운영 중이다.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점 중 최저 수준의 수수료(23%)를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은 '21년 11월 3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올해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개소한 1곳을 포함해 3곳을 개

소해 총 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현황 : (제1터미널) 41번, 12번 게이트 인근, (제2터미널) 224번, 274번 게이트 인근 → '25년 6월 중 2개소 추가 개소 예정

이번에 제2터미널에 새롭게 개소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은 K-화장품, '강한소상공인' 등 우수하고 특색있는 중소기업제품이 다수 입점하며,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매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을 비롯해 공항 이용자에게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 방문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기부]

세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성장·도약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모스크바 여성, 사할린주 섬들을 따라 100km 걸어

모스크바의 여성 주민 아나스타시야 콜론스카야는 10일 동안 쿠릴열도 100km를 걸어 횡단하면서 화산섬을 통과하고, 여러 꽃과 여러 만을 찾아가며, 자연보호구역을 평가했다. 그리고 '극동 - 모험의 땅' 경연대회에 자신의 탐험에 대한 영상을 제출했다.

그녀는 "지구상에서 이곳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특이성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적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나스타시야는 타타, 고를브나, 멘델레예와 화산들을 비롯해 초르토프 팔레쓰코프, 수카초와코트, 스톨브차프코프, 쿠릴 자연보호구역을 방문했다고 한다. 아나스타시야는 "쿠나시르섬은 장엄한 화산과 울창한 숲, 그림 같은 해안을 가진 자체 자연적 비경으로 사람을 매료시키고 있다. 내가 느끼기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태고적 자연일 것"이라고 전했다.

Москвичка прошла 100 километров по остров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Жительница Москвы Анастасия Колонская за 10 дней прошла 100 километров по Курилам, побывав на вулканах и оценив мысы, бухты и заповедник. Видео о своём походе она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конкур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Немногие места на планете могут сравниться с уникальной красотой и необычностью этих мест", - сказала она.

По словам участницы, она побывала на вулканах Тятя, Головнина и Менделеева, мысах Чёртов Палец, Сукачёва и Столбчатом, в Курильском заповеднике.

"Кунашир очаровывает своими природными пейзажами, включающими величественные вулканы, густые леса и живописные побережья - именно так выглядит

первозданная природа в моем понимании", - сообщила Анастасия.

'오너'와 '화웨이' 태블릿과 노트북, 극동지역에서 판매 증가율 선두 차지

'아위토(Авито)' 분석가들이 2024년 극동연방관구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판매에 따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신제품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인기 브랜드의 증가가 이러한 추세를 주도하고 있다.

극동연방관구에서 신형 노트북 판매는 2024년 한 해 10% 증가했고, 판매율은 17%에 달했다. 판매량에 따른 순위에서는 아수스(ASUS)가 17%, 에이서(Acer)가 14%, 레노버(Lenovo)가 11%로 선두에 있었다.

아수스 노트북은 중고시장에서 평균가격이 23,000루블리이고 신형 노트북은 72,000루블리에 판매되고 있다. 에이서의 평균가격은 중고 19,000루블리, 신형 49,000루블리이고, 레노버 노트북은 중고 19,000루블리, 신형은 58,000루블리였다.

판매 증가율에 따른 순위에서는 중국의 화웨이(HUAWEI) 제품들이 선두를 달리면서 노트북 구매율은 51% 더 높았고, 노트북의 판매량도 애플(Apple)은 (+24%), MSI는 (+7%) 더 증가했다. 극동연방관구에서 태블릿 판매량은 11% 증가했으며, 2023년에 판매율은 24% 증가해 2024년에는 30%까지 증가했다. 애플 제품의 판매율은 35%로 선두에 서 있으며, 태블릿의 평균가격은 중고가 22,000루블리, 신형은 38,000루블리이다. 2위로 삼성(Samsung) 태블릿의 판매율은 14%로 중고 평균가격은 8,000루블리, 신형은 18,000루블리였다. 3위는 중국의 화웨이 태블릿 판매율은 8%로 중고 평균가격은 8,000루블리, 신형은 16,000루블리였다

신형 태블릿 판매 성장세로 선두에 있는 태블릿들은 중국 브랜드들이다. 오너 태블릿은 2.5배 더 많이 판매됐으며, 유미오(Umii) 태블릿은 2배, 하오미(Xiaomi) 태블릿은 41% 판매율이 증가했다. 또한 애플(+18%)과 삼성(+11%) 도 판

매가 증가해 선두에 서 있는 반면 아수스 태블릿은 판매율이 11% 감소했다.

HONOR и HUAWEI лидируют по росту продаж планшетов и ноутбуко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налитики «Авито» подвели итоги 2024 года по продажам ноутбуков и планшетов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и, что доля новых устройств на платформе растёт, и главным драйвером этой тенденции явля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популярности китайских брендов.

Продажи новых ноутбуков в ДФО выросли на 10% за 2024 год, а их доля достигла 17%. Лидерами по объёму продаж стали ASUS (17%), Acer (14%) и Lenovo (11%).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ноутбука ASUS на вторичном рынке составила 23 000 рублей, нового — 72 000 рублей. Устройства Acer в среднем продавались за 19 000 рублей (б/у) и 49 000 рублей (новые). Ноутбуки Lenovo можно было приобрести за 19 000 рублей в рессейле и за 58 000 рублей в новом состоянии.

Однако лидером роста продаж стал китайский бренд HUAWEI — его ноутбуки покупали на 51% чаще. Также заметно выросли продажи ноутбуков Apple (+24%) и MSI (+7%).

Продажи новых планшетов в ДФО увеличились на 11%, а их доля выросла с 24% в 2023 году до 30% в 2024 году. Лидером по доле продаж остаётся Apple (35%), средняя стоимость планшета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ила 22 000 рублей (б/у) и 38 000 рублей (новы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Samsung с долей 14% (8 000 рублей за б/у и 18 000 рублей за новый). Замыкае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HUAWEI с долей 9% (8 000 рублей за б/у и 16 000 рублей за новый).

Среди драйверов роста продаж новых планшетов лидируют китайские бренды. Так, устройства HONOR стали покупать в 2,5 раза чаще. Продажи планшетов Umii выросли в 2 раза, а Xiaomi — на 41%. Также в лидерах оказались Apple (+18%) и Samsung (+11%). При этом продажи планшетов ASUS снизились на 11%.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